

# Emmanuel

임마누엘 vol.1, March 31, 2013

C 부활 2  
O 나를 세우신 말씀 4  
N  
T I. 행전 스타일  
T 만남 (1) 6  
E Pneuma of India 8  
N 단기선교 안내 10  
T 복인도이야기 12  
S 에녹, 니카라과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14  
나에게 영혼 구원이란? 16  
김치전도 18  
전도육하원칙 20  
그래서 이기고 있니? 22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24  
Twenty One 26  
기도의 자리 28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30  
II. 소금과 빛의 생각  
정말로 32  
전쟁 34  
소금기의 삶 36  
III. Fortran Drive 사람들  
무능한 남편, 까칠한 아내 38  
예반홍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40  
영화 Most 42  
부활절 쿠키만들기 44  
행복한 사람들 46



# 부활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란 저에게 겨울은 흑독했습니다. 고무신 속에 퐁퐁 시려오는 발, 더덕더덕 기운 양말 속에서 발가락을 아무리 꼼지락거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변변찮은 옷 사이로 사정없이 스며드는 겨울 바람에 발발 떨어져 봄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거역할 수 없는 봄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단호하던 추위가 힘을 잃고 단단하던 얼음이 푸석푸석해지며 겨울은 물러갑니다. 어느 날인가 보면 파란 새싹이 검은 흙덩이를 제치고 돌아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에 파아란 싹이 돌아 있습니다. 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의 신비함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득 보면 온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잔뜩 얼어있던 냇가에 얼음 사이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들에 냉이, 달래가 돋고, 마을 길마다 셋노란 개나리, 복숭아꽃 살구꽃이 무리 지어 피고, 산 등성이는 진달래로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겨울이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물러갑니다. 생명이 싹트는 봄이 시작됩니다. 기쁨도 희망도 함께 솟아납니다.

예수님은 죄로 가득 찬 어두운 세상, 절망이 지배하는 고통의 땅, 유대인들의 배척, 오만한 인간들의 증오가 서려있는 겨울처럼 추운 땅, 죽음으로 그늘진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봄기운에 겨울이 어쩔 수 없어 물러가듯이, 죄와 죽음과 어둠의 세력은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요1:4-9) 앞에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요11:25).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봄 같은 희망과 기쁨을 누립니다. 부활의 희망과 생명의 기쁨을, 죄로 물든 죽음의 땅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이 싹트게 하십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자서전적인 소설로 말년에 '부활'이란 작품을 남깁니다. 남자 주인공 네홀류도프는 바로 자신의 초상이었습니다. 네홀류도프는 귀족이었지만 겨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모의 양녀 겸 하인인 카튜샤를 범한 후 100 루블을 주고 떠나버립니다. 임신을 하게 된 카튜샤는 그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고 아기는 죽고, 다른 집 하녀를 전전하다가 유곽으로 들어가 창녀가 됩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의 돈과 반지를 훔치고 독살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배심원 중에 하나로 네홀류도프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된 것이 자신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카튜샤를 구하려고 애쓰지만, 카튜샤는 살인죄를 쓰고 4년 징역형을 받아 겨울의 나라 시베리아로 끌려갑니다.

그 추운 감옥,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서 카튜샤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만나며 봄 같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카튜샤가 구원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네홀류도프도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톨스토이 자신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선량한 소시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사회 밑바닥에 깔려있는 무서운 죄악들, 매서운 겨울 추위보다 더 차가운 권력, 형식만 남은 생명 없는 종교의 땅에서 그는 죽어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서를 통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의 땅에서 새싹처럼 돌아나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장차 올 완전하고 영원한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올해도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봄이 오면 겨울이 물러갈 수밖에 없듯이, 내 삶에 그가 들어오시면 죄와 죽음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생명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도 다가올 완전하고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벧전1:3). -손원배 목사

## 나를 세우신 말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3:12)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고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어린 두 손자들과 함께 놀아주고 계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찍 서둘러 예배를 마치고 아들 가족의 2부 예배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시는데 그 모습이 보기 좋아 가끔 들러 말동무가 되고는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두려움 없이 즐겁게 마음껏 뛰어놀니다. 자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놀이기구까지도 자신 만만하게 도전하면서 말입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은 손

자들의 움직이는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자신만만함은 바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다 여차하면 달려와 도와주고 달래주고 얼러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기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3:12)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고자 모세를 찾으셨고 그를 통하여 구속사역을 펼치기 위해 준비하시며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약해진 그의 마음속에 사내대장부의 담대함을 불러일으키고자 이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감히 피조물인 우리를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시고 자녀로 삼으시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건만 믿음이 부족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에 처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며 아버지와 함께 이곳까지 걸어오

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인간적인 생각과 현실 속에서도 저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늘 임재하시어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을 의지하여 왔습니다. 마치 그 어린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보잘것없는 저를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드신 것, 좋은 가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임마누엘 장로교회 형제들과 믿음생활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의 남은 삶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 8:28)하신 말씀대로 믿으며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날을 주실 것인지 설레임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렵니다.

시무장로의 역할을 한해를 남기고 돌아보니 모두가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은 나의 의를 버리고 죄인임을 깨닫는 광야생활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는 죽었소!’ 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부귀영화 만사형통을 찾는 세상 종교가 아님을 깨달으며 죽는 날까지 광야를 걸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기대하며... -유택중

# 망남(1)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다. 흔히들 전도하기를 권유받을 때, 내 주위에는 모두 교인뿐이어서 전도의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꼭 가족이나 교인뿐 아니라 직장에서나, 식품점, 은행에서 대하는 이웃들에서, 스치며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헤아린다면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도 지난 8년의 단동에서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고, 특히 중국인들, 관료들, 병원 관계자들, 조선족들, 조선족 학교 인원들, 교회 선생님들, 북조선 관리들,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온 북조선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탈북자들, 꽃제비 아이들 등등...

그리고 그 만남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서로 간에 느낌 또는 영향을 주면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에 대해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한 만남에 무엇인가를 투자를 하였다면, 그 만남의 효과를 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회이다. 어떠한 만남이 되었든, 특히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그 만남이 바로 전도의 기회이며 선교의 현장이 될 것이다.

혹한의 추운 겨울, 엄마의 손에 이끌려 얼어붙은 압록강을 밟고 조선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왔다.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너무 배가 고파서, 강 건너 풍족하게 보이는 중국으로 가면 무언가 먹을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으로 건너왔던 엄마는, 두고 온 다른 자녀를 생각해 돌아가야 하겠다고 하여, 어린 성림이(5살)를 홀로 중국 땅에 남겼고, 나는 성림이를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처럼 만나게 되었다.

폐광촌에서 사금을 채취하며 살던 소녀 혜련(18세)은 돌격대에 차출되어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강제노동을 하게 되었다. 너무나 가혹한 노동에 밤에 몰래 도망치는 언니들이 있음을 보고, 자신도 한밤에 도망을 치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언덕도 넘고, 물도 건너고, 정신없이 도망치다 새벽이 되어오니, 자신이 국경을 넘어 중국에 와 있음을 알게 된 혜련은 다행히도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생계를 위한 강변 밀수를 하며 자주 국경을 넘다 우리를 만나게 된 한 아주머니는 우리에게서 말씀을 배우던 어느 날, 다시 북조선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자신은 이미 늙었지만, 아들은 너무나 똑똑한데, 그 아들을 보낼 터이니 꼭 목사님으로 훈련해 달라는 말이었다. 약속한 기간은 훨씬 지났지만, 마침내 아들이 국경을 넘어오게 되어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인권이 무시되고 배고픔 때문에 북조선을 탈출하여 국경을 넘어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오는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은 특별한 것이었다. 인권이 유린당하는 삶의 상황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국가로부터, 권력 있는 자들로부터, 사람으로 존중되지 않고 짐승이나 벌레로 취급되는 것이다. 굶주림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짐작도 하지 못한다. 며칠 음식을 먹지 못해서 허기짐이 아니라, 다니는 길옆에서, 기차역에서, 이웃집에서, 먹지 못하여 죽어 쓰러진 시체들을 보면서, 어떠한 눈길도 줄 여유 없이 자신과 가족의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굶주림보다 먹을 것이 없는 것, 먹을 수 있다는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절망감이 그들의 더욱더 큰 고통일 것이다.

현재 지구 상에 가장 폐쇄된 국가, 들어갈 수도 없고, 굶주린 인민들을 돕고 싶어도, 이를 허용치 않는 권력 때문에 도울 길이 없는 나라, 얼마 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전 세계에서 고립되어가면서도 사상과 이념과 체제유지만을 최우선시하는 이 나라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음

의 씨앗을 심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인권의 무시와 굶주림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처절한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처절한 고통을 사용하셔서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김일성 사상과 주체 사상을 허무시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도리어 그들을 국경 밖으로 뚫어나오게 하셨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오는 방법을 통하셔서 예비된 사역자들과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지게 하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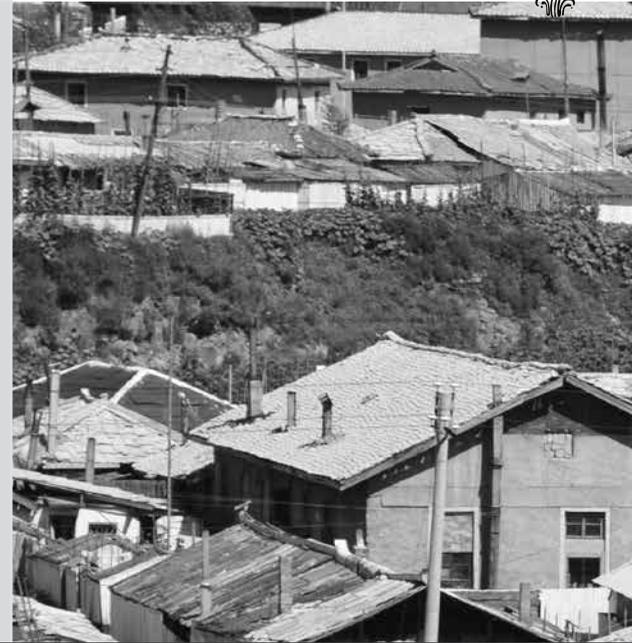
이 씨앗을 가진 자 또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감으로 다시 국경을 넘어 북조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영혼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값으심을 받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이다.” (롬 11:33-36)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2013년도에 영혼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만남의 자리로 나아간다.

복음의 빛진 자로서, 청지기의 위치에서, 마지막 시간에 부름 받은 포도원 일꾼의 자세로 순종하며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인도에서도, 중동에서도, 북조선에서도, 세계 어디에서도 주님이 친히 행하고 계시는 영혼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북조선 땅을 바라보며,  
-Abraham





## Pneuma of India

작년 봄의 일이다.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열심히 사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픈 상처를 안고 달려간 곳, 붙잡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를 생각하며 달려간 곳은 수요일배였다. 설교 중 생활 속의 어려움과 가난함, 넉넉하지 못한 생활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로 이겨 내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다. 중보 기도 시간,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외치면서 기도하는 중 갑자기 마음속 가운데 ‘선교를 가라’는 마음(성령님)의 목소리가 다가오셨다.

언제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 바쁜 직장 생활 속에 가고 싶었지만, 매번 선교를 먼저 갔다 오신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 가자고 권면하면 다음 기회에 보자고 늘 넘어갔었는데, 이번만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어떤 분들은 “선교가 우선이 아니야. 남자가, 아빠가 가정을 먼저 책임져야지, 직장을 빨리 갖고 식구들부터 챙겨야지, 지금 이 상황에 선교를 간다니 제정신이나?”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교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명히 들었으니까.

그러나 집세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 2천 불 가까이 되는 비행기 표값을 마련해야 함과 아내가 알면 한

소리 할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 그때 어김없이 나의 하나님의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책임질 터이니!”하는 목소리에 나는 다시 할 말을 잃고 “네! 가겠습니다”하고 결정하게 되었다. 다행히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는 아내가 고마웠다. 그러나 막상 단기 선교부를 찾아가니 중국과 네팔 단기 선교팀은 신청 마감되었고 남은 곳은 인도뿐이었다. 처음 가는 단기 선교에 고생길이 흰히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덕분에 기도를 더 하게 되었고, 팀원과 함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떤 외형적인 악조건과 관계없이 은혜 속에 준비하였다.

드디어 인도 북동쪽 도시인 Kolkata에 도착했다. 숨이 짝 막힌다. 더위가 더위가 아니다. 반갑게 맞이하신 조준래 선교사님의 사모님-선교사님은 더웠병으로 몸져누우시고-과 같이 사역하시는 형제님 한 분이 나와 주셨다. 길 한가운데 차가 소, 양들과 사람들 사이로 묘기를 하며 달린다. 여러 나라에 출장을 다녀 보았지만 이런 곳은 본 적이 없었다.

다음날부터 근처 열악한 선교지와 학교, 빈민촌(하리잔 불가촉민) 지역을 돌아보며, 우리 눈앞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 펼쳐져 보였다. 이성을 넘어서는, 세상에서 사람으로서는 살기 어려운 이런 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충격의 연속이고 시작이었다. 밤에 숙소로 돌아온 우리 일행은 모두 침울하다 못해 충격 속에 제대로 말을 엮어 나가지도 못했다.

선교지 도착 이틀 후 밤 기차로 10시간 북쪽에 있는 다른 사역지를 위해 출발했다. 그런데 기차가 기차가 아니다. 인도인들에게는 특급 열차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나 말들을 싣고 다니는 기차와 다를 바가 없었다. 얼마쯤 갔을까? 눈을 좀 붙였나 싶었

더니 동행하는 현지인도인 사역자 자매가 이번 길은 초행이라 잘 모른다며 우리 일행을 깨워 기차와 기차 사이에 서 있다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4시간을 모두 서서 기다렸다.

얼마나 달리고 있었을까? 기관차와 기관차 사이 좁은 공간에서 잠을 청하던 열차 안내원이 짜증을 낸다. 자기 자는 곳에서 외국인들이 소란스럽게, 짐은 짐대로 겹쳐 놓고 서 있으면서 잠을 못 자게 하니 짜증을 낼 만도 하다. 열차 안내원은 우리 가이드 자매들에게 신경질을 내며 뭐라고 계속 말을 하였다. 그때 내 마음속에 ‘화를 내는 그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파도같이 강하게 몰려왔다. 짜증 내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내가 아는 주님과 하나님을 소개했다. 우리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인도 자매들이 통역으로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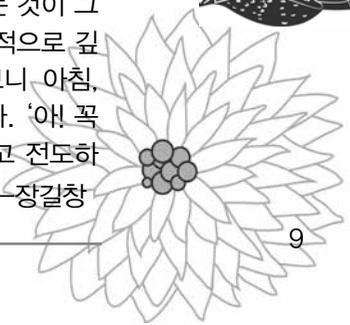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He has compassion for your life. He died for your & my sin, and resurrected from dead. If you believe in him, you shall have eternal life. Would you like to accept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Lord of Lords? Because he loves & cares for you so much.”

그 순간 그의 커다란 하얀 눈동자가 붉어지며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Yes” 할 때에 화를 내고 짜증 내던 그가 순한 양으로 변하더니 어느덧 함께 가신 장로님과 인도 자매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도자매들과 친하게 교제를 하

며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되었다. 서로 사진을 찍으며 언제 그리 친해졌는지 아쉬워하며, 인도 힌두 성경책을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무사히 여름 성경 학교를 마치고 어린양들을 뒤로 한 채 다시 볼 날을 생각하며 Kolkata로 돌아오는 기차 속에서 그 승무원을 찾아보았으나, 다른 열차였는지 볼 수가 없었다. 그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칸에 탄 우리는 자리가 떨어져 따로따로 탈수밖에 없었다. 내 앞에 한 인도 청년이 검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열쇠고리 같은 게 보였다. 자세히 보니 England Manchester United 축구팀 열쇠고리였다. 우리 한국 박지성 선수가 뛰는 팀이 아닌가. 잠깐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다 보니 이 인도 청년은 대학교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 졸업하여 지금 Kolkata에 직장을 잡으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나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8년 넘게 축구를 뛰는 사람이고 축구를 좋아하기에 축구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함께 간 전도사님께 이 청년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전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도사님은 “아이고! 요 앞에 이슬람 사람들이 있으니 조심하고 가만히 있어요.”라고 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 하실 것이라 믿고 주위를 살피며 조금 기다린다는 것이 그동안의 피로와 잠이 몰려 와 순간적으로 깊은 잠이 들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아침, 도착지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다. ‘아! 꼭 이 인도 청년한테 주님을 소개하고 전도하고 싶었는데...’(다음 호에 계속) -장길창



# 임마누엘 장로교회 2013년 단기선교 안내

당회의 결정에 따라 2014년부터는  
본 교회 '선교의 삶' 수강자 또는 '퍼스펙티브' 과정 수료자만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단기 선교훈련만 받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문의: 김유향 권사(408-828-5460) 이수복 집사(408-891-0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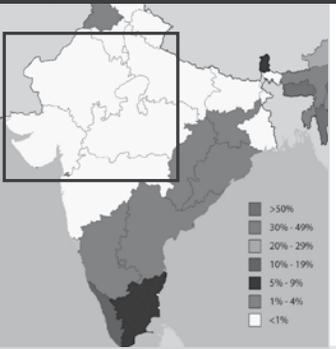
\*참가 기간은 현지 선교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변경될 수 있음.



- **아리조나 호피인디안 앤디유 선교사**  
현지 선교사 사역: 제자 양육 사역  
요청 사역: 말씀 사역, 찬양 사역, 소그룹 인도자 4~5명, VBS 저녁 집회, 섬김과 봉사  
참가 기간: 6월 27일(목) 부터 7월 3일(수) 까지  
참가 인원: 5~10명
- **중국 김00 목사**  
현지 선교사 사역: 소수민족선교, 북쪽 선교, 개척 교회  
요청 사역: 지속적인 말씀 사역 및 양육 훈련  
참가 기간: 7월 10일(수) 부터 7월 22일(월) 까지  
참가 인원: 5~10명
- **니카라과 박성도 선교사**  
현지 선교사 사역: 신학교 (교육사역), 교회 개척, 마약/알콜 중독자 재활 사역, 거리 사역  
요청 사역: 청소년을 위한 VBS, 찬양 집회, 의료 사역, 목사님의 말씀 사역, 전도 집회, 교실 건축  
참가 기간: 7월 24일(수) 부터 7월 31일(수) 까지  
참가 인원: 5~10명
- **인도 조준래 선교사**  
현지 선교사 사역: 8개 교회 사역, 목장, 어린이 사역, 찬양팀, 인재 양성, 여성 사역  
요청 사역: 목장 세미나, VBS, 의료 사역  
참가 기간: 8월 8일(목) 부터 8월 19일(월) 까지  
참가 인원: 5~10명
- **네팔 홍추민 선교사**  
현지 선교사 사역: 현지인 교회에 복음 전파, 청소년 말씀 사역, 고아원 사역, 지방 공립학교 지원  
요청 사역: 말씀 사역을 위한 교역자 파견  
장년- 의료사역 / 청소년- 말씀 및 찬양사역  
참가 기간: 10월 2일(수) 부터 10월 14일(월) 까지  
참가 인원: 5~10명
- **북인도 미전도 종족**  
현지 선교사 사역: 미전도 종족 입양, 전도  
요청 사역: 영혼 구원, 가정 교회  
참가 기간: 12월 5일(목) 부터 12월 18일(수) 까지  
참가 인원: 5~10명

# 북인도이야기

“북인도는 낫을 갖다 대기만 해도  
곡식인들이 스스로 와서 추수 되어지는 땅과도 같다.”



### \*북인도에 간 이유

- 전세계 미전도 종족 15억중 4억이 북인도에 있기 때문에
- 2014년 인도 대통령 선거시 힌두 급진 정당이 집권 된다면 선교의 문이 닫힐 수 있기 때문에
- 북가주 교회 연합 선교로서 교회 개척 선교의 불을 지피는 계기

### \*선교 팀원

- 조다윗, 강모니카, 김사인, 김현준, 김희재, 이구진, 정은숙, 정조나단,

...나도 예수님처럼 북인도 땅의 사람들을 향한 compassion 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 현지인 사역자는 이번 사역을 위해 8일간의 사역기간 동안 내내 3일간 또는 매일 한 두끼의 금식을 하며 섬기는 모습에 마지막 며칠은 우리도 한 두끼를 금식하며 사역을 감당했다. ...세번째로 이번 사역을 앞두고 마태 복음을 매일 한장씩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8일간의 사역 첫날을 시작하게 하신 이후, 말씀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염려나 의심, 준비에 대한 답을 매일 매일 주셨음에 놀랍고 감사할 뿐이다. ...우리가 세우고 온 수십 명의 House Church Leader들이 제대로 양육받아 자생적으로 배가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야 할 텐데 그리고 두고 온 현지 사역자 수닐을 혼자 두고 와야 했던 미안함이 아직도 뜨겁게 남아 있다. 기회가 되면 두고 온 그들을 다시 찾아가 위로하고 싶다.



북인도 선교현장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태복음 9:36

...북인도는 소동과 쓰레기 더미로 우리를 맞이했다. 거리는 자동차, 소, 말, 코끼리, 낙타, 자전거,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개와 돼지까지도 사이사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영화의 세팅처럼 보였다. 그들의 복장 또한 영화에서 본 예수님 당시의 복장과 거의 다를 바 없었다. ...사나운 귀신을 쫓을 때는 그 마을에 들어가기전부터 힘이 들었고 다음 마을로 이동할때 온몸과 영혼이 힘이 빠져 탈진상태가 올때도 있었다. ...그 한시간 안에 몇달 혹은 몇년 해야 할 일들이 이루어 지는것에 대한 답은 한가지, 하나님께서 북인도 마을에 일하고 계신다고 밖에 말할 길이 없다. 그일에 잠시나마 거기 있도록 나를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북인도 선교현장

저희가 방문한 가정중 하나에는 여인 네명이 계셨습니다. 그중 한명이 복음제시를 들으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이 나왔을때에 얼굴에 슬픔이 가득해 보이시면서 고개를 숙여 얼굴을 손에 문으셨습니다. 복음제시를 다 마치고는 그분이 3년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나오시면서 저희한테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과부이셨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의지할 분은 오직 어머니셨는데 마치 모든 희망을 잃은듯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주신 작은 하트모양의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 하트속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나누기 전에는 십자가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북인도 선교현장

인도서민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제시하면 대부분 주의깊게 듣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힌두와 무슬림이 섞여 사는 마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힌두마을에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한 마을에서는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는 차에까지 가까이와서 다과를 하고 갈것을 권하며 “very happy to hear” 라는 말을 제게 해주신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한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는 어떤 아주머니가 “no church, pratna, pratna. (prayer)” 라고 한것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적극적인 사람들의 복음 전파율이 0.0x 퍼센트라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주신 이 하트 모양의 그림이 자기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어 왔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아신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저항도 거부도 없이, 진지하고도 쉽게 받아들이는 마을 사람들을 볼 때, 성령님께서 이미 저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였고, 단지 저를 선교대열에 동참 시키심으로 저로 하여금 큰 기쁨을 갖게 하셨습니다. (선교팀원들의 간증문 중에서 발췌)

## 에녹,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먼저 단기 선교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박성도 선교사님으로부터 신학교 졸업식에 동역자님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편지를 받은 후, 과연 늙은이들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위 사람들과 짐이나 되지 않을까? 졸업식만 참석하고 온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가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선교 여행을 추진했습니다. 전직 의사이신 김광성 집사님도 함께 가시고 또한 파송 예배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니 더욱 힘이 나기도 했습니다.

늙은이들이지만 무언가 해보자는 마음에 헌 옷을 모으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들을 위한 선물 봉지 150개와 가난한 어른들에게 줄 치약과 칫솔 봉지 70개, 꼭 필요한 의약품들, 그곳에서 부탁해 온 고춧가루 및 밀반찬들을 모아 보니 엄청난 양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로 무사히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 공항에 도착해 늦은 시간 선교센터에서 사모이신 박순옥 선교사님이 손수 지어주신 비빔밥과 구수한 된장국은 얼마나 맛있던지요!

이른 아침 모두 함께 모여 김태오 목사님의 인도로

QT의 시간을 가졌고 밤이면 여자들 5명이 함께 손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그 시간, 은혜스러운 주님께서 함께함을 느꼈기에 선교지에 온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날엔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약 5백 명이 한자리에 모여 박순옥 선교사님의 찬양 인도로 하나 되어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놀라웠습니다. 그런 열정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하나 되게 사로잡는지? 역시 좋은 선교사님에겐 좋은 동역자인 사모님이 계심을, 하나가 아닌 서로 돕는 배필로 묶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했습니다. 25명의 졸업생과 목사 안수를 받는 세 분의 목사님들, 이제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길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배와 마약과 술로 살아가는 니카라과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기에 더욱 귀한 그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축복을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셋째 날은 주일이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특송을 부탁받아 7명이 함께 단위에 올라가 “쁘르라 산도 쌍그레(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아이들 어른들까지 모두 와서 부둥켜안으며 글라시아스(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어떤 이는 안고 기도를 해 주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언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지만, 주안에서 맺어진 한 형제자매가 아닌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넷째 날은 어려운 지역 시장 한구석에 구식 마이크를 설치하고 정석훈 선교사님이 현지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먹을 것을 주며 섬기는 사역장에 참석했습니다. 남루한 옷에 올망졸망한 아이들, 서로 툭툭 치며 낄낄거리는 청년들, 술에 취해 소리를 꺽꺽 지르는 아줌마, 직업도 없는 남자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안아주며 섬기시는 정 선교사 부부를 보니 너무도 안쓰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손뼉을 치며 안아주고 다독여 주며 예배를 드리고 안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온 마음과 몸 다 바쳐 섬겨도 돌아올까 말까 하는 그 영혼들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청춘을 바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 다 내어 버리고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귀하신 몸이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먼동이 트기 전부터 밤늦게까지 목자 없는 양의 무리와 같이 몰려드는 군중을 가르치시고 가지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광야에서 탈진할까 염려되어 먹이시며 밤에는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던 지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불쌍한 죄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선교사님들을 통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 주시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도 선교사님을 보니 모기와 벼룩에 물린 자리로 가려워 성한 곳이 없는 몸으로 신학생들 강의와 주일이면 예배 인도하시랴 새벽부터 잠시 쉴 틈 없이 섬기시는 모습과 사모님 역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의 세끼 식사 준비며, 노교수님들의 강의 통역하시고 주일이면 찬양인도에 교인들 챙기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또는 작은 물질과 불과 몇 분 기도드리고 선교사역에 동역자라 생각했던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교만했던 게 아닌가 뉘우쳤습니다. 온몸 다 바쳐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선교지에서 얻은 마음으로 내 남은 생을 바르고 부지런히 살고자 다짐을 해 봅니다. -김옥남



니카라과 선교현장

## 나에게 영혼구원이란?

대학을 졸업하고 10여 년 만에 만난 동창과 저녁 식사 후 나누던 이야기 속에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무척 부끄러워졌고 또 영혼구원을 삶의 목표로 삼고 기쁘게 누리며 살아온 친구의 간증에 도전되고 감동되었습니다. 친구는 함께 캠퍼스에서 전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함께 산호스테이트 대학에 나가 학생들을 전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현장에서 이미 오래 떨어져 살아왔던 저는 친구의 권유에 흔쾌히 그러자고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한인교회 대학부 회장을 맡고 있었던 저의 아파트에선 월요일마다 대학부 부장집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제자훈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장집사님께서 한국에서 이번에 편입해 온 학생들이라며 친구와 친구의 룸메이트 대학원생 형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날 부장집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직 한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고 친구와 룸메이트는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이후 친구는 월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제자훈련에 참석하였습니다. 2년 남짓의 시간을 학교와 교회에서 함께 보내며 친구의 신앙은 날로



성장하였고 함께 캠퍼스로 전도를 나갈 때면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먼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별회를 겸한 대학부 마지막 모임에서 저는 떠나는 마지막 인사말로 친구와 후배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그 다짐을 지키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짐은 점점 잊혀져갔고 세상과의 적절한 타협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핑계를 찾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영혼구원의 사역이라고는 목장 문 앞에서 불신자가 와주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목장에서 맞이 한 몇 번의 만남마저도 준비가 되지 않아 우왕좌왕했습니다.

영겨진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첫 실마리를 찾고 길을 잃었을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상책이기에 제가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성경은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는 마음 깊은 곳까지 깨달아졌습니다. 처음 영혼구원의 도구로 쓰였을 때도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부에서 하던 캠퍼스 화요전도모임이 있었는데 초신자인 저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친구와 선배들이 모인다고 해서요. 그때의 전도방법은 미리 믿지 않는 한인 학생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정하고 CCC에서 만든 전도 책자인 사영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2주는 기도만 하며 저의 전도 짝 선배가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3주째에 선배가 “오늘은 네가 한번 전도해 보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약간 망설여졌지만 “너는

그냥 사영리만 읽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약속한 학생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학생이 많이 사는 대학원생 기숙사로 가서 한 한국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통화가 되어 저보다 나이 많은 불신자 대학원생 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당황하기도 하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사영리를 다 전하고 영접 초청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접 초청하기 전 사영리에 쓰인 내용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좋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봐도 그동안 제가 복음을 전한 중에 가장 사실적이고 진심이 담긴 복음 제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날 대학원생 형은 나이가 한참 어린 대학 1학년인 저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영접한 주에 교회에도 출석했고 이후 교회에서 그 형을 볼 때마다 계속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오늘 저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찾아졌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감격을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요일기도회에서 찬양을 따라 부르다 대학부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나오면 눈물이 나곤 합니다. 그때 가졌던 구원의 감격이 떠올랐나 봅니다. 제가 영혼구원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에 감사드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이 저를 통해 되어지겠지요.

이 지면을 빌어 이렇게 한참 모자란 저를 목자라고 기도해 주시고 따라 주시는 저희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글을 맺습니다. -우민



영혼구원  
한길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

## 김치 전도

“해만 뜨면 전도하고 싶다”던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늘 전도의 자리에 있으려 힘쓰고 애썼는데 2년전 미국에 와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특별히 언어가 익숙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나 늘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영혼을 저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지난 해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겼고 하나님이 간증으로 주신 집으로 이사 후 먼저 양쪽 옆집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집은 타이완 가정, 한 집은 인도 가정이었습니다. 인도는 큰 아들이 그곳에서 2년간 유학을 한적이 있고 저도 몇번 다녀온 적이 있어서 접촉점으로 인사 하기가 참 좋았고 그분들도 마음의 문을 쉽게 열었습니다. 저의 머리 속엔 온통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까로 가득차 있던 중 김치를 담그게 되었는데 인도 자매님은 한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면서 옆집 타이완 자매님에게 김치로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에게 혹시 김치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김치를 매우 좋아 한다고 했고 매운것도 좋아하느냐고 했

더니 매운것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김치를 했는데 주겠다고 했더니 땡큐를 연발하며 사실은 자기가 한국 식당에서 김치를 먹어보았는데 몹시 맛있어서 몇 번 사먹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었구나.’ 김치를 그릇에 가득 담아 드린 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치가 옆집 자매님 입맛에 맞게 해주세요.’ 토요일 아침 자매님이 그릇을 전해주면서 마켓에서 사 먹은 김치보다 더 맛있으며 김치 만드는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말마다 어디에 가는 지? 왜 그렇게 자주 가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했더니 자기 친구들도 교회에 나가는데 Jesus란 말을 단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Jesus란 말을 단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다는 그녀의 말이 순간 번개처럼 뇌리를 치며 지나 갔습니다. 주말에 자주 파티를 하느냐고도 물었습니다. 금요일이면 저의 집에서 주로 목장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 주차된 차들을 보고 궁금했으나 봅니다. ‘늘 무관심한것 같았는데 실은 내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일에 대해 그저 감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수요일 오전에 김치 담그는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영어가 서툰 저는 인터넷을 뒤져 영어로 김치 만드는법을 며칠간 외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수요일 아침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밖에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자신의 차를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녀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계셨습니다. 함께 한국마켓에서 김치

거리들을 장만해 저의 집에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준비해 놓은 영어전도 책자를 꺼냈습니다.

“헬렌. 혹시 이런 책 본 적 있으세요?”, “원데요?”, “이건 하나님이 헬렌을 몹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영생 얻는 길에 대해 기록된 책인데 들려주고 싶어요” 했더니 흔쾌히 응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제시했고 영접 기도를 남겨둔 상황에서 헬렌은 남편 점심을 차려주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좀 아쉬웠지만 배추가 절여질 때까지 두 시간 후에 만나기로 하고 ‘하나님! 헬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성령만을 의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시간 후 그녀가 왔고 아까 마무리를 못한 것이 있는데 잠깐 마무리 하고 김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접기도문을 읽는 중 갑자기 제 눈이 침침해지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고 그때 헬렌이 자기가 읽겠다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뒷부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부분을 읽을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한다고 사전에 얘기해 주었던 아멘을 크게 하였고 아멘의 의미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환한 표정으로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김치를 한 통 가득 채워 보낸 후 남은 뒷설거지를 하는 저의 마음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얼마전 그녀가 제게 “Jesus loves you”라며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저의 귀를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저와 헬렌은 Jesus loves you로 인사합니다. 그 후로 목장을 준비할 때면 한국 음식 한가지씩을 목장 시작 전 가장 따뜻할 때 가져다 줍니다. 헬렌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목원으로 믿고 섬겨야 할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 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녀는 한국 음식이 매우 맛있다고 합니다.

헬렌의 온 식구가 구원얻기 위해 가정 예배때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지체없이 순종한 것 뿐이었고 하



나눔께서 일하셨습니다. 김치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음식이고 무엇보다 전도의 귀한 도구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인도로 선교가지 못해도 이 곳이 바로 저의 선교지입니다. 주님! 이제는 옆집 인도 자매님 가정 차례입니다.’ -김정신



### 누가? 내가 해야 합니다.

전도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3)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나 ○○○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어명이며 전도는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 언제, 어디서? 지금, 여기서 해야 합니다.

전도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선교사로 나가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과 ‘거기’를 주십니다. 전도는 환경이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차차 해도 될 일이 아니라 너무나 긴급한 어명입니다.

어명이라는 말을 듣고도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철저한 영적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수술이 필요한 위중한 환자입니다.

‘다음’과 ‘나중’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다음’과 ‘나중’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어명에 지금, 그리고 여기서 순종해야 합니다.



### 무엇을?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전도를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그 깨달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어떻게? 성령의 도움으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움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도할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으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 전서2:4)

우리의 전도 내용이나 전도 행위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 입니다.

### 왜? 전도는 어명 곧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해야 할까요? 어명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왕의 명령입니다. 가족을 살리고 친구, 친척, 이웃을 살리는 어명입니다.



# 그래서 이기고 있니?



**어느 날** 사탄이 국제대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악마를 얹어놓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을 교회에 못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그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을 성경적 가치관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친밀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와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의 권력은 붕괴되고 맙니다. 자, 그들이 교회에 나가고 크리스천 삶의 형태를 유지해도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시간을 훔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치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구원자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악마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사소한 것들로 분주케 하고 그 마음을 쉴 수 없는 갖가지 생각들로 채우는 겁니다. 쓰고 쓰고 또 쓰고 빌리고 빌리고 또 빌리게 그들을 유혹하십시오. 하루에 6~7시간, 10~12시간 일하도록 설득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삶의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하세요. 가족이 붕괴되면 가정은 더이상 직장의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안식처가 되지 못하지 못할 겁니다.”

Satan called a worldwide convention. In his opening address to his demons, he said, “We can’t keep the Christians from going to church. We can’t keep them from reading their Bibles and knowing the truth. We can’t even keep them from biblical values. But we can do something else. We can keep them from forming an intimate, continual experience with Christ.

“If they gain that connection with Jesus, our power over them is broken. So, let them go to church, let them have their Christian lifestyles, but steal their time so they can’t gain that experience with Jesus Christ. This is what I want you to do. Distract them from gaining hold of their Savior and maintaining that vital connection throughout their day.”

“How shall we do this?” asked his demons. “Keep them busy with the nonessentials of life and invest unnumbered schemes to occupy their minds,” he answered. “Tempt them to spend, spend, spend, then borrow, borrow, borrow. Convince them to work six or seven hours a day, 10–12 hours a day, so they can afford their lifestyles. Keep them from spending time with their children. As their families fragment, soon their homes will offer no escape from the pressures of work.”

“그들의 마음을 잔뜩 자극해 놓아 작고도 고요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세요. 운전할 때면 언제나 라디오나 CD를 듣게 하고 항상 TV와 DVD 머신과 CD가 종일 집안에서 돌아가게 만드세요. 커피 테이블을 잡지와 신문으로 가득 채우세요. 하루 24시간 내내 그들의 마음을 뉴스로 때리는 겁니다. 운전하는 거리는 광고판으로 메우세요. 우편함과 이메일은 정크와 공짜 상 받기, 각종의 뉴스레터와 할인 쿠폰들로 짹짹 메우는 겁니다.”

“심지어 여가 시간도 과하게 만들어 주세요. 휴가에서 돌아올 때는 지치고 복잡하게 만들어 새로 시작하는 주장을 준비치 못하게 하세요. 교회 모임을 가질 때의 소문과 잡담으로 때우게 만들어서 영혼이 채워지지 않은 채 돌아가도록 하세요.”

“전도에 관여토록 해 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삶이 다양한 명분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능을 찾을 시간적 여유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힘에 의지하게 되고 결국 대의를 위해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화합을 희생하게 될 겁니다.”

굉장한 국제 대회였습니다. 악마들은 임무완수를 위한 의욕에 불타 돌아갔습니다.

“Overstimulate their minds so they cannot hear that still small voice. Entice them to play the radio or CD player wherever they drive, to keep the TV, the DVD player, and their CDs going constantly in their homes. Fill their coffee tables with magazines and newspapers. Pound their minds with news 24 hours a day. Invade their driving moments with billboards. Flood their mailboxes and e-mail with junk, sweepstakes, and every kind of newsletter and promotion.

“Even in their recreation, let them be excessive. Have them return from their holidays exhausted, disquieted, and unprepared for the coming week. And when they gather for spiritual fellowship, involve them in gossip and small talk so they leave with souls unfulfilled.”

“Let them be involved in evangelism. But crowd their lives with so many good causes that they have no time to seek power from Christ. Soon they will be working in their own strength, sacrificing their health and family unity for the good of the cause.”

It was quite a convention. And the demons went eagerly to their assignments.

—발췌 & 재구성 from Why Pray? by Jim Denison

##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2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 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아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아원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이어령





## Twenty One (21, 다니엘 기도회)



한어 청년부 기도의 현장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2012년 연말을 보내고 2013년 새해를 맞으며, 제 안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각성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총명한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향한, 그리고 개인과 청년부 공동체의 부흥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과 또 위에서 부르고 계신, 마치 부르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해서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일 동안 연속으로 다니엘 (단 10:2-3)처럼 따로 구별하여 밤마다 교회에 모여 작정 기도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1월 첫 주일 설교 때, 이 부분을 도전하였고, 젊은이의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Twenty One’이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Twenty One 다니엘 기도회’였습니다. 과연 얼마나 청년들이 나

올 것인가, 내심 걱정도 되고 궁금하였는데, 시작하고 보니 기대 이상으로 많은 청년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매일 평균 25명, 적게는 20여 명 많게는 35명 이상의 청년들이 Twenty One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며 저는 일종의 어떤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다면 이 젊은 세대에도 소망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음을, 또 이들 안에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요, 사람이나 공동체가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신년의 Twenty One이 끝났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올 남은 한 해 동안 날마다 계속 상징적인 Twenty One을 이어 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주시면 다시 모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보형 목사

성령의 권능을 늘 힘입는 자가 되기 위해, 신자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세대에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 항마리 간증 글

“처음엔 막막했는데 일단 가보자는 결심으로 21일 동안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고 나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로 인해 더 감사할 수 있었던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예진)

“지친 삶 속에서 21일간의 기도는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아바 아버지와 더 깊게 소통하고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고 계심을 느꼈던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영적으로 단련하며 주님 안에서 더 간절하게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였습니다.” (김윤진)

“이번 기도회를 나오면서 잊고 지냈던 저의 비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1년 동안 부르짖었던 예배의 회복은 나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했던 모습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이번 기도회에서 나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우리 비전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아론)

“21일 동안 귀찮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매일 밤 기도회에 가서 하루를 되새기고 다짐하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 기도회를 하는 동안 어려운 일도 무난히 이겨냈던 것 같아요.” (김민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임재하심과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의 사랑을 경험한 기회였습니다.” (김현중)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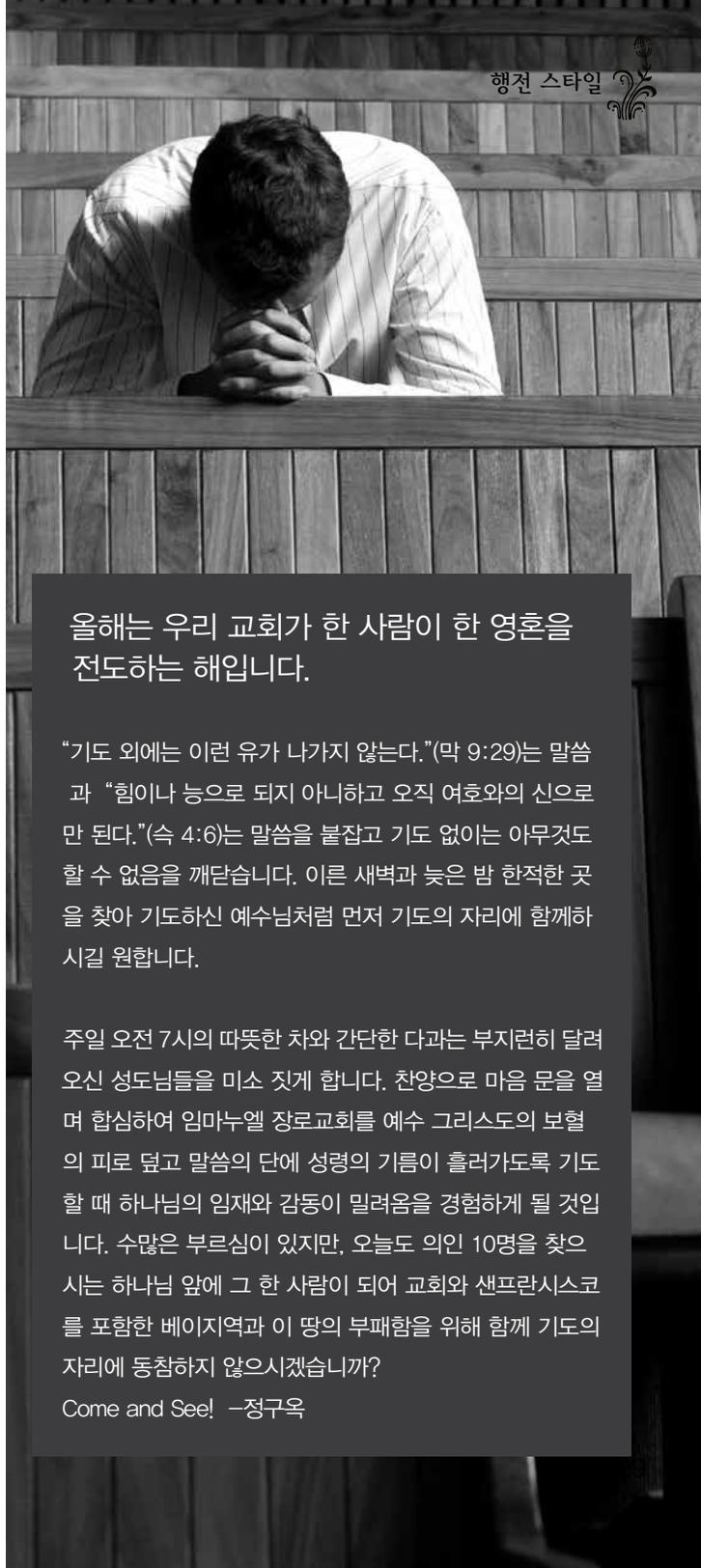
<기도의 자리>

“ 임마누엘 장로교회  
기도팀을 소개합니다.”

신양부는 네개의 기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주일예배중보기도**  
주일예배 중보로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 등부, 비전 한어청년부, 영어 대학부, EM, 장년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있도록, 예배에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찬양대를 위해 지휘와 반주에 깊은 영감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2. 담임목사님을 위한 10분 기도**  
각 가정에서 한 달에 한번 업데이트되는, 손원배 목사님께서 주시는 기도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기도제목으로 기도하며 목사의 영적 싸움에 성도님들의 기도가 강력한 무기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 3. 기도온 용사 기도**  
교회 안의 모든 기도제목과, 선교와 전도, 환우를 위하여 가정에서 하루 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격월로 넷째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 4. 산상기도회**  
분기별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세계 금식 기도원에서 모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해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막 9:29)는 말씀과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신으로만 된다.”(속 4:6)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른 새벽과 늦은 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주일 오전 7시의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다과는 부지런히 달려오신 성도님들을 미소 짓게 합니다. 찬양으로 마음 문을 열어 합심하여 임마누엘 장로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말씀의 단에 성령의 기쁨이 흘러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이 밀려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부르심이 있지만, 오늘도 의인 10명을 찾는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되어 교회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베이지역과 이 땅의 부패함을 위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Come and See! -정구옥

##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7 Common Comments  
Non-Christians make about Christ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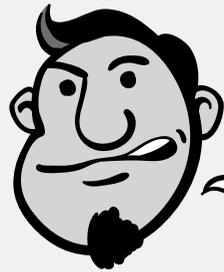
크리스천이랑 친구가 되어 과연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는 바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직접 알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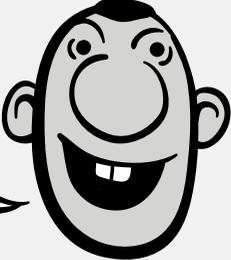
그들은 뭔가 불만투성이인 것 같아요. 세상이나 자기 자신에게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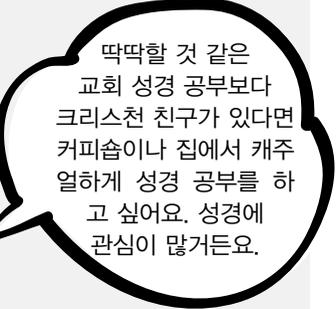
그들의 삶이나 믿지 않는 나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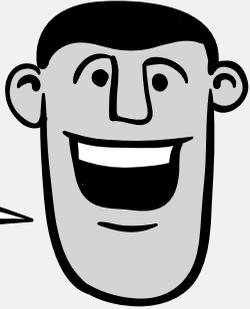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구는데 마치 가면 쓴 것처럼 가식적이지 않나요?



크리스천들에게서 좋은 아빠 엄마 남편 아내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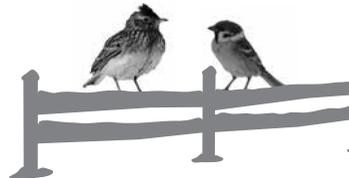


딱딱할 것 같은 교회 성경 공부보다 크리스천 친구가 있다면 커피숍이나 집에서 캐주얼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요. 성경에 관심이 많거든요.



크리스천이 나를 교회에 데려가 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교회를 방문하려니 멋쩍기도 하고 평생에 한 번도 교회에 가 보자는 초대를 못 받아봤네요.

[http://thomrainer.com/2012/09/15/seven\\_common\\_comments\\_non-christians\\_make\\_about\\_christians](http://thomrainer.com/2012/09/15/seven_common_comments_non-christians_make_about_christians)에서 발췌



어느 날 종다리와 참새가 만나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람들은 왜 저리 호들갑을 떨면서  
안달복달 걱정투성이인 줄 모르겠어.”  
“글쎄 말이야, 아마도 재네들한테  
너랑 나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안 계신갑다.”

Said the Robin to the Sparrow:  
“I would really like to know  
why these anxious human beings  
rush around and worry so.”  
Said the Sparrow to the Robin:  
“I think that it must be  
that they have no heavenly Father  
such as cares for you and me.”



# 정말로

**주일** 날 교회에서나  
또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때는 그래도 제가 주님을  
'믿는 자' 라는 생각을 갖고 그 가정 하에  
행동을 하게 되지만 교회를 벗어난 대부분의  
생활속에서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정말로 믿는 자인가?' 하는 섬뜩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들과  
주님의 일을 할 때 숨겨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 잣대로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저의 모습 때문에 믿음의 부족함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며 과연 내가 신자라고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의 부족함을 느끼며 답답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종종 '정말로?' 라 물으며 저의 믿음을 점  
검해 보고 새로운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옆에 소개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저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옷깃을 다시 여미고 생각하게 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제 삶의 많은 모습을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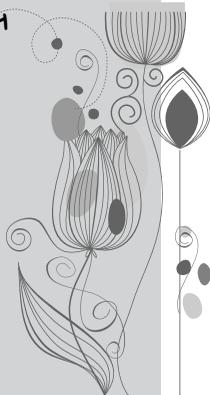
2013년에는 저와 저의 가정이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오늘도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작은 간장 종지라도 좋으니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김용배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며,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수고한 종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며  
위로하실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남미 퀘샤 인디언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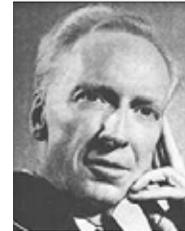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밥 피어스(월드비전과 사마리탄즈 퍼스의 창시자)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드리는 나의 어떤 희생도 큰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C.T. 스테드(중국,인도,아프리카 선교사)



“오 하나님이시여, 제 인생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저는 원합니다. 제가 조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결혼을 했든지 독신이든지, 행복하든지 슬프든지, 건강  
하든지 병이 나든지, 번영이나 역경 속에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기를 원합니  
다. 저는 당신의 계획을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 생명을 걸고 저는 원합  
니다.”

오스왈드 스미스(캐나다 선교의 주역)



“다른 사람들이 지상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가 왕 중의 왕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가지셨는데 그는 선교사였으며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비록 아주 형편없는 복사품이 되겠지만, 아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저는 그렇게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 가난과 선교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리빙스턴(아프리카 의료선교사)

-헨리 블랙가비& 클로드 킹,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 중에서

# 전쟁

하나님의 가치관

VS

세상의 가치관

Every year, approximately 40,000 people die on American highways. Every ten days, that many abortions are performed in America. Doctors conduct 1.5 million abortions every year in the United States, more than the total of all America's war dead across our history.



Walk for Life, SF  
[http://berkeley4life.org/wp-content/uploads/2012/01/bicg\\_header.jpg](http://berkeley4life.org/wp-content/uploads/2012/01/bicg_header.jpg)

**저는** 지난 1월 26일 토요일 샌프란시스코 대법원 앞에서 시작된 'Walk for Life(생명을 살리는 걷기운동)'에 참가하였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매우 추웠지만 어른, 아이, 노인까지 6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 곳곳에서 대형 버스를 타고 와 내리는 것을 목격한 감동의 하루였습니다. 이날 '생명을 살리는 걷기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샌프란시스코 Supreme Court 광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그들의 손에는 이렇게 쓰인 피켓들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낙태는 엄마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 "낙태는 아빠의 역할을 빼앗아 간다", "낙태는 살인이다", "작아도 생명은 생명이다", "말 못하는 아기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 "Planned Parenthood가 아니라, Planned Personhood" 등등의 피켓들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죽어 간, 태어나보지도 못한 어린이들의 생명은 공식 확인된 것만 550만(5.5Million)이며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더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미국이지만 공립 학교 교육에서 창조론과 성경공부, 기도가 빠지고 '창조론' 대신 '진화론'(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된 인간 대신 동물로 시작된 사람을 가르침)을, '성경과 기도' 대신 '인본주의와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겨우 10년 만인 1973년, 낙태는 한 여성의 소송에 의하여 어이없이 합법화되게 됩니다. 미국이 말씀을 기초로 건국된 지 2백 년이 채 안 되어, 사람들의 거역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성경적 교육이 타협되고 무너지면 다음 세대를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인간의 쾌락에 바탕을 둔 욕구를 우선시하려는 미국 정부의 거듭되는 잘못된 판결과 결정 때문에 미국은 지난 50년간 계속 더 어두운 곳으로 몰락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오바마 정권에 의하여, '가정과 결혼의 정의'가 무참히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가정이란 한 남자인 아빠와 한 여자인 엄마로 시작한다는 성서적인 정의를 내버리고, 엄마 아빠가 두 쌍 이상, 아무나(남자 여자 상관없이) 되는 것을 지금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결혼의 제도'(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합)를 뿌리째 없앨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처럼, '말씀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까지 같은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격이 된 것입니다.

'가정'과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시며 인간들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영광의 그리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서까지 없애시고자 한 '죄와 마귀의 일'들이 넘쳐나 지금 미국의 '법 또는 정치'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자유는 계속 빼앗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바마케어.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을 뵈는 것이라면, 성경의 가장 기초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생명, 가정의 정의와 결혼의 정의가 조작되며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지금 무심해서도, 모른 척해서도, 잠잠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1서 3:5-8)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마지막 시대이며 심각한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되며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깨어 분별하여야 할 시대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정과 결혼제도를 귀하게 여김과 동시에 우리만 진리를 알고 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상 밖에 나가 우리의 본분인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을 이번 부활절에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사라

# 소금기의 삶



<http://www.saltnews.com/2009/02/kauai-guava-smoked-salt-photoshoot/>

**작년** 10월, 'CNN 뉴스'와 '산호세 머큐리 뉴스' 신문에 홍추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네팔에 관한 짧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네팔의 바이타디(Baitadi)라는 산골에서 레오파드(표범) 한 마리가 사람을 13명째 잡아먹었다는 기사로 네팔이라는 단어에 끌리어 계속 관심 있게 읽어왔는데, 11월까지 15명의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먹어 결국 네팔 당국이 현상금 3백 불을 걸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냥꾼들은 목계로 “식인짐승(사자, 호랑이 등)을 만나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사람의 피와 살맛을 안 식인짐승은 사람을 다시 해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는 노루나 사슴 같은 야생동물의 피보다 소금의 농도가 더 짭니다. 야생동물보다 더 짭짤하게 소금기가 많은 피에다, 그 피에 젖어 있는 간이 알맞게 밴 사람의 살맛은 도저히 다른 야생동물의 피와 살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사냥꾼들의 주장이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 소금의 짙은 맛에 맛 들인 식인 레오파드(표범)는 도저히 그 맛을 끊을 수 없어, 계속 사람 사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 태평양 연안 지역 특산물 중의 하나로 브루셀 스프라우트(Brussels sprouts)라는 채소가 있습니다. 생긴 것은 양배추를 축소해 놓은 것 같고 방울토마토 정도의 크기인데 약간 씹쓰레한듯 하면서도 감칠맛이 납니다. 이 브루셀 스프라우트는 몬트레이와 산타크루즈 그리고 해프 문베이를 잇는 고속도로 1번 바닷가 주변의 밭에서 재배되며 이곳의 수확량이 전 미국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다고 합니다. 이곳 품종은 내륙지방의 같은 품종들이 도저히 경쟁에서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데 이른 아침 태평양으로부터 불어오는 소금기 낀 아침이슬이 브루셀 스프라우트와 토양에 축축이 내려앉아 그 맛을 독특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소금의 직분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그 소금으로 인한 갈증을 느끼고, 생수의 근원되신 주님을 찾게 됩니다. ”**

**세상의 눈으로 봐도 우리 크리스천의 언행은 세상과 다른 “소금으로 고르게 된” (골로새서 4:6) 언행의 삶을 살아 갑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며,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소금기가 밴, 맛이 짭짤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으로 봐도 우리 크리스천의 언행은 세상과 다른 “소금으로 고르게 된” (골로새서 4:6) 언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Sunday Church Goer’라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소금의 간이 밴 삶은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금기 많은 짠 반찬을 많이 먹으면 갈증이 심해져 더욱 물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이 어떻게 갈증을 느껴 생수의 근원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의 직분을 다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그 소금으로 말미암은 갈증을 느끼고 생수의 근원되신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속에 소금으로 알맞게 간이 맞추어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박용갑

## 무능한 남편, 까칠한 아내



### 결혼생활

15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분으로부터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라는 질문에, 나는 믿는 남편을 만나 행복한가 하고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웬지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가정에서 살지만, 대화가 되지 않아서 그냥 말을 멈추기도 했고, 항상 내 기대치에 못 미쳐주는 남편이 무능하게 여겨졌습니다. 내가 꿈꾸던 가정의 모습이 이것이 아닌데 하며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달라고, 남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아이들의 아빠로... ‘그냥 이대로 사는 걸까?’ 결혼은 ‘정’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나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혼생활을 해야 하나?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기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주시겠다”고(사 61:1)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해 보이는 내 가정이 폭발 직전의 위기! 10년 동안 개인 사업으로, 교회 일로 바쁜 남편은 집안일은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잦은 출장은 내 안에 불만을 더욱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부부 관계가 아닌 채무관계로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 은행에 돈 넣어줘, 나 뭐가 필요해 등등... 이것이 우리의 대화였죠!

그러던 중 아들이 13살이 되는 12월이었습니다. 남편은 역시 출장 중이었고, 아들이 이제 teenager가 되니 뭔가 기억할 만한 생일을 맞이하게 하고 싶은 맘에 은행 잔고를 확인해 보니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고, 아들의 생일은커녕 일주일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This is it!’ 남편이 일부러 나를 골탕먹이려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렇게 무책임한 남편과는 더는 살 수 없다는 결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나에게 몰려오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업하신다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했던 친정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것 갖다 사업 시작하고 끝은 항상 이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끄셨던 아버지! 한 번도 우리에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 한 번 한 적 없으신 분, 그러면서 당신 즐기고 싶은 거 다 하셨던 분! 나는 자라면서 그런 아버지가 싫었고 원망이 되었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아버지라고 여겼습니다. 결심했죠! 나는 이런 남자하곤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를 떠난 지 20년 만에 내 가정을 보니, 저는 너무나 슬펐고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책임감 없고 무능하게 느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남편에게서 느껴졌

을 때의 절망감은 나를 못 견디게 했습니다. 드디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혼이라는 단어가 싹트기 시작했고, 이혼이라는 생각을 굳히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마 1:18-19)

지금까지 요셉이 의로운(righteous) 사람이라 동거 전에 임신한 여자를 사람들에게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끌으려 한 줄 알았는데, 그날 아침의 말씀은 나에게 요셉은 의로운 (faithful to the law) 사람이었기에 법대로 이혼하려 했다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법을 지키기에 신실한 사람, 법대로 살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 그 요셉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하며 스스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온 자신을 새롭게 알게 된 거죠! 그날 주님은 내게 만일 요셉이 자기 의를 고집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예수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에게서 나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힘들지만, 순종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너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 날도 동일한 메시지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셉이 임신 말기인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으로 호적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건(눅 2:1-5). 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들레헴을 향해 가지 말라고, 그 몸으로 어딜 가느냐고, 그리고 요셉!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가면서 잘 곳도 예비하지 않고 무작정 갔느냐고 그런 무능력한

남편을 따라가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딸을 낳고 백일도 채 안 되었을 때, 뉴욕에 사시는 시댁식구들이 가족사진을 찍어야 하니 모두 오라고요. 나는 산후조리도 안 된 이 몸으로 절대 못 간다고 우겨댔고 중간에서 안절부절못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무능해 보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이 나의 대변인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요셉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리라 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주님은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길러진 나, 무능하다 느껴지면 용납할 수 없고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되면 견디기가 힘든 모습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은 순종의 길에 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일 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도 자란 것 같고, 남편이 우리 가정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론 불만이 느껴질 때, 우릴 불드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길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내겐 주님과 나만이 갖는 광야의 시간이 있기에 감사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며 나를 만나 주실 주님 때문에 설렘으로 말씀을 펴니다. 나를 변화시켜 가정을 지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박옥진





## 에반 홍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 에반 홍 전도사님을 추모하며

고 에반홍 전도사님과의 만남은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어린 학창 시절을 지냈던 곳인 남가주 벨리는 내가 미국에 와 첫 생활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니 전도사님과 나는 이민 고향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2000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임 사역자로 오셔서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나도 함께 Youth Group을 섬기며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도사님께 고마운 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와 있는 우리 세 자녀 모두를 전도사님께서 말씀으로 양육시키시고 신앙의 훈련을 해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관심을 두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곤 하신 일입니다.

1년 전쯤 홍 전도사님께서 편찮으시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은 후, 카이저 병원에서 첫 수술 받으시기 전에 찾아볼 때만 해도 조금 살이 빠지긴 했어도 수술만 끝나면 곧 회복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 간간히 들려 오는 소식은 내가 기대했던 것에서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최근에 홍 전도사님의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다는 소식을 접

하고 한번 만나 보고 싶은 마음에 그동안 전도사님을 정성껏 꾸준히 도와주시던 이동우 장로님과 함께 지난 금요일 저녁 전도사님이 사시던 아파트를 방문한 것이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많이 여위신 몸에 평소의 전도사님 모습은 찾을 수가 없기에 아픈 마음으로 한동안 말문을 잃었습니다. 누워 계신 전도사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니 지나간 10여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YG를 섬길 때 종종 점심을 먹으며 YG Ministry Vision을 함께 나누고, 학생들의 애로점을 의논하며, 손잡고 함께 기도하던 기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전도사님께서 지난 추억들을 되새기며 내가 그동안 좋은 협력자였다고 오히려 문병 온 나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에반홍 전도사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드러 주님이 맡겨 주신 Ministry와 학생들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사역을 사랑하셔서 교회 사무실에서 자정을 넘기시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지속

적인 관계를 유지하셔서 전도사님 아파트는 늘 학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전도사님의 삶 자체가 학생들을 향한 사역과 사랑이었습니다. 수시로 학생들을 만나고, 전화와 이메일로 신앙 상태를 점검하곤 하셨지요. 학생들과 함께 '40일 기도' 캠페인을 할 때는 아침마다 학교를 두루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해 주곤 하셨습니다.

전도사님께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사주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음식점으로 학생들을 데려가서 본인의 주머니돈으로 푸짐하게 대접해 주곤 하셨습니다. 이민 2세들의 마음의 아픔을 몸소 아셨기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처 해주지 못하는 몫까지도 전도사님께서 대신 채워 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몸까지도 다 바쳐서 주님이 맡겨 주신 사역과 학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에반홍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비전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 가는 일에 열심이었을 뿐 아니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존중하며 따르려고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셨듯이, 전도사님께서 제자로 삼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려는 비전을 품고 사셨습니다. 그동안 전도사님께서 YG Ministry에 투자했던 열정과

학생들과 밤낮으로 함께 지냈던 수많은 시간을 통해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전도사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지금 상담과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며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면 이민 교회 2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이민교회 2세들을 아끼던 전도사님의 진지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전도사님, You did great work, and that was your portion." 계속 말하기 힘들어하시던 전도사님께 드린 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미국 여러 곳에서 사랑하는 전도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제자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열매로 남아 있습니다. 사흘 후 월요일 저녁에 전도사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가보니 전도사님 몸에는 아직도 따스한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소유하셨던 유품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정해 부탁하시고, 평소에 아끼시던 성경책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남기시고,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치신 후, 그리던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으로 잠자듯이 누워 계시던 전도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에반 홍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요.  
We Love You!

2013년 2월 9일  
최상훈



<크리스천 영화방>

# MOST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삼 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바로 부활절이 담고 있는 생명의 의미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참된 의미를 알기보다는 세상의 떠들썩한 절기 중 하나처럼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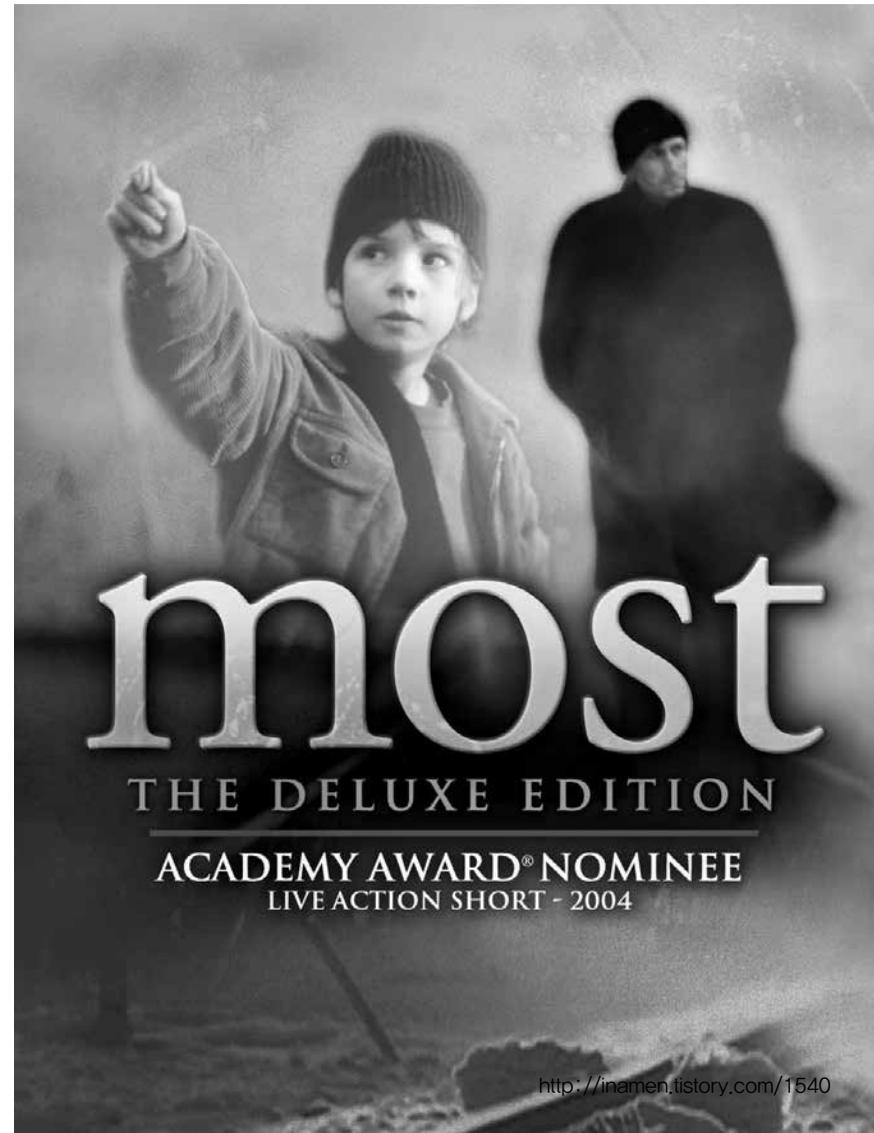
여기 체코에서 제작된 영화 MOST를 통해(MOST는 체코어로 bridge를 뜻한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자.

밝은 웃음과 기쁨을 가진 어린 아들과 그런 아들을 통해 살아갈 이유를 찾는 아버지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 아버지는 배가 들어 오면 다리를 올리고 기차가 오면 다리를 내리는 일을 하는 브릿지맨.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의 일터에 오고 싶어 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데, 아들이 낚시하는 동안 배가 온다는 신호를 받은 아버지는 조정실에 있는 레버를 올려 배가 지나가게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기차의 기적 소리와 연기... 그러나 기계실 안에서 다른 일을 하는 아버지가 미처 알지 못한 채,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어린 아들은 낚시하며 놀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아빠, 아빠! 기차가 들어와요.” 소리쳐 부르지만, 아버지는 듣지 못한다. 어린 나이에도 위험을 감지한 아들은 다리 위로 올라가 다리 밑 기계실 레버를 당기기 위해 엎드리고, 억지로 레버에 손이 닿는 순간 몸이 다리 밑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그때야 아들이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아버지! 기차가 눈앞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 시간 기차 안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연인 등 보통 사람의 일상이 지나간다.

절체절명의 순간... 레버를 내리면 기차는 안전하게 통과하겠지만, 기계 톱니에 끼인 아들은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 결국, 아버지는 절규하며 레버를 내리고... 기차는 무사히 지나가게 되지만 아들은 죽게 된다.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승객... 그들은 차창 밖에서 목놓아 통곡하는 남자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 아들을 희생하고 그들을 구한 아빠의 처절한 울음은 기차 소리에 묻혀 무심하게 흘러진다.



영화를 보는 내내 ‘과연 나도 기차에 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희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자기 아들마저 희생할 정도로 죄 중에 빠진 우리를 몸 시도 사랑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속죄양으로 삼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마음에 살아나게 되었다.

아들을 안고 울부짖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인생이라는 열차 안에서 웃고, 떠들고, 노래한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죽음이 었다는 것을 무심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영화 MOST를 통해 죄 중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bridge가 되신 예수님을, 부활 생명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정열



부활절, 어린양으로 상징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간 데 없고 토끼가 판을 친다. 자녀들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깊이 심어 줄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부활절 이야기'란 이름의 쿠키 만드는 법은 어떨까?



1. 오븐은 미리 350도에 맞추어 예열해 놓는다. 피칸을 ZIP LOCK 봉지에 넣은 후 자녀들에게 나무 손가락이나 막대기 등을 하나씩 주고 봉지를 두드려 속에 들어 있는 피칸을 부수도록 한다. 너무 잘지 않게 어느 정도 부서지면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군병들에 매 맞으셨던 이야기를 들려준다(요한복음 19장 1~3절을 읽음).
2. 식초병을 돌려가며 모든 식구가 뱀새를 말도록 한다. 그런 다음 식초 1티스푼을 큰 믹싱 볼에 담는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목말라 하셨으며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음을 이야기한다(요한복음 19장 28~30절 읽음).
3. 계란을 흰자와 노른자로 분리하고 흰자만 식초 속에 넣는다. 여기서 계란은 생명을 의미한다.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설명한다(요한복음 10장 10, 11절, 28절 읽음).
4. 약간의 소금을 각자의 손바닥에 조금씩 뿌려 준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소금을 식초와 계란이 들어 있는 그릇에 털어 넣게 한다. 그리고 손바닥에 남아 있는 소금기를 맛보게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슬픔을 못 이겨 눈물을 흘리던 가족들과 제자들의 눈물을 생각나게 한다(누가복음 23장 27절 읽음).

5. 지금까지 들어간 재료로는 맛이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설탕을 넣으면서 맛있는 쿠키가 만들어질 것을 믿으라고 말한다. 그리고 부활 이야기 중 가장 달콤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하신 바로 그 부분이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주셨다고 설명해 준다(시편 34편 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읽음).

6. 전기 믹서를 하이 스피드에 놓고 12분~15분 정도 돌려 재료가 절벽처럼 높이 올라갈 때까지 저어준다. 진주빛 하얀 색깔을 보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얗게 보아주신다고 말해 준다(이사야 1장 18절과 요한 1서 3장 1~3절 읽음).

7. 피칸을 재료 속에 넣어 끈적한 옷을 골고루 묻힌다. 반죽을 쿠키 종이에 동그랗게 한 손가락씩 떠 넣으면서 그 모양이 예수님이 묻히셨던 고대 돌무덤 같다는 얘기를 한다(마태복음 27장 57~60절 읽음).

8. 오븐에 재료를 넣되 문쪽으로 가까이 넣는다. 그리고 오븐을 완전히 끈다. 참가자들에게 유리 테이블을 조금씩 나누어주고 오븐 문에 붙이도록 한다. 이때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이 인봉하고 굳게 닫아 두었음을 말해 준다(마태복음 27장 65~66절 읽음).

9. 모두 침대로 돌아가 자도록 한다. 쿠키를 그대로 오븐 속에 두고 약간은 실망스럽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픈 마음을 함께 이야기한다.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마음이 들게 했으리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 읽음).

10. 부활절 아침! 함께 오븐을 열고 쿠키를 나누어준다. 이때 쿠키의 표면이 갈라져 있음을 지적하고 먹어 보도록 한다. 쿠키 속에 구멍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던 날 제자들은 그의 무덤이 열리고 비어 있음을 보고 놀랐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마태복음 28장 1~9절 읽음).

**재료:**

반쪽 짜리 피칸1컵,  
식초1tsp, 소금 약간,  
계란 3개,  
설탕 1컵.

**준비물:**

성경책(찬송가도 틀어놓음),  
유리 테이블, 전기 믹서,  
믹싱 볼, 쿠키 종이,  
나무 손가락 혹은 주걱이나 막대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캐시 스트릭랜드가  
만들어 낸 독특한 방법



알환우 분들을 섬기는  
행복한 사람들의 함박 웃음은  
바로 천국 웃음입니다.

(좌로부터 황복림, 송선실, 신현숙,  
신주아, 김은희, 박신애)

행복한 사람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 : 25~26)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  
and whoever lives by believing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John 11:25–26,NIV)

\*임마누엘 다음호(vol.2)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로 꾸며가는  
교육위원회 특집호입니다.

발행인    편집인    기획    진행    교정및교열    사진    표지그림    편집디자인  
손원배    유택중    이윤선    김정신 / 김범진 / 장인영    김백미 / 정현주    김범진 / 윤영숙 / 홍인표    백영희    홍정희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4435 Fortran Drive,  
San Jose, CA 95134  
Tel. 408. 263. 5100  
[www.kepc.org](http://www.kepc.org)